



아시아리뷰

제14권 제3호(통권 32호), 2024

중동 시민사회의 도전과 변화:  
권위주의 체제 속에서의 역동적 가능성



# 서문:

## 중동 시민사회의 도전과 변화: 권위주의 체제 속에서의 역동적 가능성\*

구기연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중동 지역에 시민사회란 존재하는가? 최근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아랍의 봄 이후 민주화의 기대가 무너지고, 다시 권위주의 체제로 회귀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튀르키예에서는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대통령이 2003년 집권 이래 장기 집권의 길을 본격화하며 권위주의적 통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집트와 튀니지 역시 아랍의 봄을 통해 독재 정권을 축출한 후 민주주의로 전환에 실패하며 권위주의로 회귀하고 있다. 이집트에서는 압델 팻타흐 엘시시(Abdel-Fattah el-Sisi) 대통령이 2013년 군부 쿠데타로 집권한 이후 장기 집권 체제를 구축하며 시민사회의 활동을 억압하고 있다. 튀니지의 카이스 사이드(Kais Saied) 대통령은 2021년 의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개정하여 입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면서 권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이스라엘과 가자 간의 전쟁은 중동 지역의 정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전쟁은 단순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을 넘어, 중동 전역에서의 민족, 종교, 정치적 갈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권리 회복과 국가 수립의 문제는 이란, 튀르키예, 이집트 등 중동 국가들에서 민족주의와 이슬람주의의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스라

\* 본 연구는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공동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3S1A5A2A03085596).

엘의 군사적 대응은 지역 내 여러 국가들의 내부 정치와 외교 전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란과 튀르키예는 팔레스타인과의 연대를 강조하며, 내부 정치의 정당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반면,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적대적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중동 내에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그 영향력에 대한 논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이처럼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은 정치 개혁을 위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경험했음에도 권위주의 정권의 생존력과 적응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퇴행 속에서 정치 엘리트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성 질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도전과 충동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기존 질서에 도전하며 새로운 정치적·사회적 질서를 모색하는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산발적인 저항을 넘어, 기존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 질서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본 특집호는 이집트, 이라크, 이란, 튀르키예, 요르단 등 권위주의 체제와 시민사회의 갈등과 도전이 가장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시민사회가 모색하는 새로운 질서와 이들의 잠재적 영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아랍의 봄을 겪으며 자발적인 시민사회의 힘을 경험한 시민들은 비록 민주주의 전환에 실패했지만, 정부의 억압적인 상황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시민사회 모습을 갖추고 정권에 끊임없이 도전하려는 능동적인 역동성을 여전히 발휘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은 중동 지역의 권력 재편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지역 시민사회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다.

본 특집호가 가지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기존 중동·북아프리카 시민사회를 연구하는 분석틀로 사용되었던 서구식 시민사회 보편론과 이슬람 혹은 중동의 권위주의적 문화의 예외론이 내포하는 이분법적 논쟁을 넘어서, 현재 중동 시민사회의 고유한 역동성을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전통적으로 중동·북아프리카 시민사회에 관한 논의는 서구 사회의 경험에 바탕을 둔 학문적 이론을 토대로 이루어져 왔다. 기존의 시민사회에 대한 전통적 이념을 바탕으로 중동의 시민사회의 특성과 역량은 국가로부터 분리된 세속적이고 자발적

결사체로서 권위주의에 대항하는 보편적인 민주주의 추동 세력의 관점에서 분석되었다. 한편, 이슬람이나 보수적인 문화를 주요 정치적, 사회적 동원수단으로 사용한 시민사회라는 차별적 관점에서 중동 시민사회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오늘날 두 접근법은 종종 경쟁하거나 대립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곤 한다. 그러나 2011년부터 목격된 중동 시민사회 운동의 양상은 단순히 어느 한쪽의 접근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보편성과 특수성이 함께 혼재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5개국 사례를 통해 기존 중동·북아프리카 시민사회 분석 틀의 한계를 극복하여, 보편적이면서도 차별적인 특징을 모두 아우르는 중동 지역만의 특수한 시민사회를 분석하는 새로운 대안적 접근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특집호를 통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시민사회가 추구하는 대안적 질서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들의 향후 정치 변동 가능성을 전망하고자 한다. 2011년 중동과 북아프리카 전역으로 확대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인 아랍의 봄은 발발 당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중동의 정치경제 지형과 시민사회에 대한 예외주의적 시각 때문이다. 예를 들어, 헌팅턴과 같은 학자는 이슬람이라는 문화적 특수성을 중동·북아프리카 사회를 규정하는 불변의 본질적 요소로 보았고, 이는 자유로운 시민사회의 성장을 억제하는 방해 요소로 여겨졌다. 또 다른 관점인 지대 추구 국가 이론에서는 지대 추구 국가의 특징으로 인한 정부와 시민 간의 특수한 의존 관계로 인해 중동 시민들이 자발적 결사체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기존 정치 질서를 개혁하려는 의지와 동력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번 특집호에서 다루는 이라크, 요르단, 튀르키예, 이란, 이집트 시민사회에서 나타나는 저항과 국가 개혁을 위한 투쟁은 중동·북아프리카에서도 정치적 자유를 위한 시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시민사회의 정치적 변동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서구 민주주의의 국가에서 발전한 정치 및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시민사회의 정의나 역할, 자격이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재고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중동·북아프리카 예외주의라는 관점에서 서구 정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시민사회 개념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려는 시도가 아니다. 오히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치 및 사회학에서의 시민

사회 개념이 중동 국가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각국의 시민사회는 다양하고 차별적이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본질은 더 나은 개인, 공동체의 삶, 나아가 국가의 발전이라는 공동선에 기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동·북아프리카 시민사회의 연구는 기존의 시민사회 연구 관행을 넘어서, 지역 특수성을 초월해 보편적인 시민사회 연구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황의현은 2019년 이라크에서 발발한 티슈린 운동을 통해 종파와 민족적 분열을 넘어서는 시민사회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이라크는 2003년 바아스 정권 붕괴 이후 종파별 권력분배 원칙에 기반한 민주적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는 형식적 민주주의에 불과했다. 정치 엘리트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그 이익을 특정 종파와 집단에 배분하는 체제는 국민 대다수를 정치적 과정에서 배제했고, 이는 국가의 기능 부전과 심화된 사회적 분열로 이어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시민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권리를 되찾고 국가의 전면적 개혁을 요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티슈린 운동은 이라크 시민사회가 단순히 억압에 수동적으로 순응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획기적인 사례다. 이 운동은 종파와 민족을 초월한 연대를 통해 기존 정치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며, 이라크 시민사회에 새로운 역동성을 부여했다. 운동의 초기 단계에서 시민들은 광장을 중심으로 한 집회와 시위를 통해 정치적 목소리를 높였고, 점차 그 영향력을 확대하여 의회로 향하는 제도적 변화를 모색했다.

비록 티슈린 운동은 종파적 권력분배 체제를 해체하고 정치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성과를 남겼다. 시민들은 단순한 저항을 넘어, 시민적 통합과 새로운 정치적 가능성을 탐구하며, 기존 체제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이어갔다. 황의현은 이 운동을 분석하며, 이라크와 같은 사회적 갈등이 정치화된 국가에서도 시민사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정치적 변화를 위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조명한다.

본 연구를 통해 황의현은 티슈린 운동을 사례로 이라크 시민사회의 가능성과 한계를 면밀히 검토한다. 운동이 종파적 갈등에서 벗어나 시민적 연대를 이끌어

내며 정치 변화를 추구한 점은 이라크 시민사회 발전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그러나 티슈린 운동은 기존 정치 제도의 강고한 저항과 제도적 구조의 한계에 직면하여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는 이르지 못했다. 황의현은 이를 통해 시민사회가 정치적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서 정치 제도적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라크 사례가 다른 중동 국가들에게 주는 시사점을 탐구한다. 티슈린 운동은 이라크 사회에 정치적 변혁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으며, 시민사회가 스스로의 힘으로 정치적 공간을 재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안소연의 논문은 요르단의 선거 과정을 통해 중동 지역 시민사회의 정치적 참여 메커니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요르단은 권위주의적 왕정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다당제 의회 선거가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경쟁적 권위주의 체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 연구는 요르단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 양상을 공식 의회 선거와 대학교 학생 위원회 선거라는 두 가지 선거 과정을 통해 탐구한다. 특히 대학 내 선거 캠페인의 치열함과 그 정치적 함의는 요르단 사회의 정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실제로 대학 선거는 요르단의 의회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정치적 축소판으로 평가받으며, 젊은 층의 정치적 성향과 참여 방식을 드러낸다. 전통적으로 정치학계에서는 권위주의 국가의 선거를 단순히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거나 형식적 민주주의를 가장하기 위한 도구로 간주해왔다. 이러한 관점은 선거를 실질적 정치 발전의 도구라기보다는 체제 유지의 수단으로 폄하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안소연의 연구는 이러한 전통적 평가를 넘어, 요르단과 같은 권위주의 체제에서도 선거가 절차적 민주주의의 학습과 정치적 발전의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요르단 시민사회의 정치 참여에는 부족주의적 관행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요르단의 선거는 종종 부족적 기반에 따라 표심이 결정되며, 이는 개인적 자격보다는 집단적 충성심에 기반한 정치 문화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안소연은 시민사회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제도적 개선과 변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다원성을 강조하는 선거 캠페인은 시민사회의 정치적 성숙을 보여

주는 중요한 징후로 해석된다. 특히, 젊은 세대가 대학 선거를 통해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며, 요르단 사회에 새로운 정치적 가능성을 열고 있다.

중동의 선거에 대한 기존 평가는 부정적이었지만, 안소연의 연구는 요르단 사례를 통해 시민사회의 힘이 체제 내의 구조적 한계를 돌파하고, 점진적 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요르단 시민사회는 선거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권리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나아가 민주적 관행을 학습하고 내재화하고 있다. 선거를 통해 나타나는 역동적인 요르단 시민사회의 정치 참여 과정은 단순히 선거 결과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사회가 정치적 학습과 성장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데 기여한다. 안소연은 요르단 시민사회의 다양한 선거 참여 과정을 통해 그들의 정치적 역량과 민주주의적 잠재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는 요르단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 전체의 정치적 발전 가능성을 탐구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권위주의 체제에서도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중요한 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중동 여성 운동은 오랜 시간 동안 억압과 편견에 맞서 끊임없이 자신들의 주체성을 확립해왔다. 전통적으로 중동 여성은 수동적이고 억압된 존재로 인식되어 왔으나, 실제로는 역동적이고 변혁적인 사회운동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쿠르드 여성과 이란 여성은 민족적, 종교적, 성별로 얽힌 다층적인 억압 속에서도 사회 변혁의 강력한 동력으로 부상하며, 기존의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질서에 도전해왔다. 이들은 단순히 권리의 수혜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변혁의 주체로서, 억압적 구조를 재구성하고 대안적인 사회 모델을 제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그 과정에서 여성의 연대와 저항은 단일 국가를 넘어 중동 전체의 시민사회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권리 회복의 차원을 넘어 포괄적이고 해방적인 사회 변화의 비전을 제시하며, 중동 지역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하은과 구기연의 연구는 중동 여성운동의 다양한 양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여성들이 오랫동안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변혁의 주체로서 스스로를 재정의해가는 과정을 재현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쿠르드 여성운동과 이란 여성운동을 통해 중동 시민사회에서

여성의 역할과 기여를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에서 조명하며, 이를 통해 권위주의적 체제 속에서도 여성들이 이룩한 정치적, 사회적 성과를 드러낸다.

한하은은 이번 특집호 논문에서 AKP와 쿠르드 여성 운동 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지속적인 억압에도 불구하고 쿠르드 여성 운동이 어떻게 자율성과 정체성을 구축해왔는지를 탐구한다. 나아가 이들의 저항과 연대 과정을 통해 현대 중동 시민사회의 역동성과 AKP와의 관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쿠르드 여성 운동은 중동 여성 운동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 중 하나이다. 민족적 소수자이자 여성이라는 이중의 억압된 위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치적, 사회적 공간에서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형성해왔다. 단순히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사회 변혁의 주체로 스스로를 재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운동은 기존의 권력 구조에 대한 저항을 넘어, 대안적인 사회 모델을 제시하는 실천적 운동으로 발전해왔다. 정치적 이념과 민족을 초월하는 연대의 힘을 보여주며, 시민사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특히 제도화된 정치 체제의 테두리를 벗어나 독자적인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그들의 실천은 중동 지역 여성 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보여준다. 쿠르드 여성 운동의 의의는 단순히 여성의 권리 요구에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민족, 젠더, 종교를 넘나들며 보다 포괄적이고 해방적인 사회 변혁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권위주의적 구조와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며, 중동 사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실천적 운동으로 평가된다. 한하은은 소수민족과 여성이라는 이중의 소외된 그룹이었지만 시민사회라는 무대에서 주인공으로 발돋움하게 된 튀르키예 쿠르드 여성운동을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구기연은 이란 시민불복종 운동의 역사를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이를 통해 이란 시민사회 발전의 동력과 그 중요한 역할을 조명한다. 이란의 시민사회는 오랜 기간 권위주의적 정권에 맞서며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고, 현재 이란 이슬람공화국 정권에 심각한 도전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이슬람적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권과 시민사회가 추구하는 보다 포괄적이고 세속적인 민

주주의 간의 갈등은 이란 사회 전반에 걸쳐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압박을 통해 정권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여성운동이 자리하고 있다. 이란 여성운동은 단순히 성평등을 요구하는 차원을 넘어, 이란 사회 전반의 변화를 촉진하는 시민사회 운동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6년에 시작된 백만인 서명 운동이 있다. 이 운동은 여성들의 법적 지위 향상을 목표로 했으며, 다양한 사회 계층의 참여를 이끌어 내며 대중적인 지지를 얻었다. 이후 2009년 녹색운동에서도 여성들은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민주화 요구와 연대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2014년부터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강제 히잡 착용법에 저항하기 위해 시작된 해시태그 운동은 글로벌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온라인 공간에서의 저항과 연대를 강화했다. 특히 2022년, 마흐사 아미니의 죽음은 이란 사회에 깊은 충격을 주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히잡 시위는 단순히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운동을 넘어, 정권에 대한 전반적인 반발과 저항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2년의 히잡 시위는 여성운동과 시민사회 운동이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 시위는 여성운동의 요구가 단지 성별의 문제를 넘어서, 이란 사회 전체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확장되는 지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여성들은 용감하게 앞장서며, 시민사회의 강력한 동력으로서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운동은 이란 시민사회가 권위주의적 통치 구조를 넘어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중심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새롬은 2013년 군부정권 회귀 이후 이집트 시민사회를 사회적 기업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이 분석은 2011년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을 강타한 아랍의 봄이라는 역사적 사건에서 출발한다. 아랍의 봄은 기존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광범위한 도전과 함께 시민사회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부각시켰다. 이 시기는 민주주의와 시민적 권리에 대한 열망이 폭발적으로 분출된 시기로, 지역 내 정치·사회적 변동을 연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특히 아랍의 봄은 기존의 권위주의적 통치 구조와 시민사회 간의 관계

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촉진했다. 이들 연구는 봉기 이전과 이후의 맥락에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국가 권력과의 상호작용을 재조명하며, 기존의 시민사회론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하지만 한새롬은 이러한 연구가 아랍의 봄 이후 권위주의가 재등장하는 맥락에서 시민사회의 변화와 발전 과정을 충분히 조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봉기가 진압된 후 시민사회의 활동은 억압되었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양태와 형태를 깊이 있게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새롬은 자신의 논문을 통해 특히 이집트 사례를 집중 조명한다. 2013년 군부정권이 재집권하면서, 이집트 사회는 다시금 강력한 억압의 시대로 회귀했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민주 저항 세력의 활동은 크게 위축되었고, 많은 시민사회 조직이 해체되거나 활동의 제약을 받았다. 그러나 한새롬은 이러한 억압적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시민사회 활동, 즉 사회적 기업이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한다. 그는 사회적 기업이 단순히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에 그치지 않고, 억압적 정치 환경 속에서 대안적 정치적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적 기업은 공적 담론과 참여의 장으로서 기존의 정치적 공간이 축소된 상황에서도 생존하고, 때로는 확장되며 새로운 시민사회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한새롬은 이러한 현상이 기존 시민사회 담론이 지나치게 가시적 저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특히 2013년 이후 이집트와 같은 권위주의적 맥락에서 시민사회 활동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를 제안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권위주의 정권하에서도 시민사회가 여전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입증하며, 아랍의 봄 이후 시민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결국, 한새롬의 연구는 이집트 사회적 기업 현상을 통해 권위주의적 환경에서도 시민사회가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이집트뿐만 아니라 메나(MENA) 지역의 다른 권위주의 국가에서도 시민사회 운동의 지속 가능성과 그 잠재적 역할을 재고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2024년 12월, 중동의 현재는 혼란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다. 2023년에 시작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은 그 양상과 결말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

잡하고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설령 휴전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전쟁은 현대사에 가장 참혹한 분쟁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가자 지구에서만 4만 4천 명이 넘는 희생자를 낸 이 전쟁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을 넘어 세대를 걸친 복수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레바논과 팔레스타인의 젊은 세대들이 건강한 시민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많은 전문가와 관찰자들은 중동에 대한 모든 기존 예측이 무너졌으며, 이 지역의 미래는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하다고 진단한다.

중동의 시민사회를 논의하기에 앞서, 해결해야 할 정치적, 경제적 문제들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다가올 미국의 트럼프 2.0 시대는 중동 지역에 새로운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예고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트럼프의 이전 임기에서 아랍-이스라엘 간 긴장 완화를 목표로 추진된 아브라함 협정은 표면적으로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아왔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협정이 현재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의 잠재적 트리거가 되었다는 암묵적 인식이 존재한다. 따라서 트럼프의 새로운 재임 기간 동안 중동 세계가 어떤 지정학적 격랑을 맞이할지, 그리고 새로운 행정부가 중동 지역의 역학 관계를 어떻게 재편할지는 지금으로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직 시간만이 이 불확실성의 실체를 드러낼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중동의 현재 상황은 비록 절망적이지만, 시민들과 시민사회의 끈질긴 저항과 변화에 대한 열망은 여전히 빛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예측불가능하고 불안정한 정치적, 사회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변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는 최근 오랜 투쟁과 저항 끝에 독재자 바샤르 알 아사드를 몰아낸 시리아의 시민사회가 증명한다. 시민사회 운동은 단순히 정치적 저항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사회 변혁을 추구하고 있다. 종파주의의 벽을 넘어 초국가적이고 포용적인 연대를 형성하며, 민주주의와 자유, 여성의 권리, 국가적 독립, 그리고 근본적인 인권과 생명의 존엄성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특히 중동의 청년들과 여성들은 이러한 시민사회 운동의 최전선에 서 있다. 여성들은 전통적인 가부장제와 종교적 제약을 뛰어넘어 평등과 정의를 요구하며, 사회 변혁의 주체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레바논, 팔레스타인, 시리아 등 각

지역의 여성들은 폭력과 억압에 맞서 평화와 인권을 위해 계속 투쟁 중이다. 젊은 세대들 또한 중요한 변화의 동력이 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과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국경을 넘는 연대를 형성하고, 기존의 정치적, 사회적 패러다임에 도전하고 있다. 그들은 평화, 인권, 사회 정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오래된 갈등의 패턴을 깨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동의 시민사회 운동은 단순한 저항을 넘어 대안적인 사회 모델을 구축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의 투쟁은 단기간에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지라도, 장기적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불확실성과 폭력에도 불구하고 중동의 시민사회는 희망의 불씨를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다. 이들의 끈질긴 저항과 변화에 대한 믿음은 중동의 미래에 대한 가장 강력한 희망의 원천이 되고 있다. 앞으로의 연구는 이러한 시민사회 운동의 역동성과 잠재력에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이다. 중동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군사적, 외교적 개입을 넘어 시민사회를 지원하고, 시민사회의 역량강화에 도움을 주는 접근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중동 지역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평화와 인권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